

A Study on the Reading Statu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ding Behaviors of Selected Korean Businessman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 시리즈 4〉

職場人の 讀書實態와 讀書行動에  
影響을 주는 變因에 관한 研究

金 容 富

韓國教育開發院 司書

編輯者註：本稿는 1975年度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司書  
教育專攻 碩士學位論文的 要約이다.

I. 序 論

A. 研究의 必要性

오늘 날 인간은 情報의 汎濫속에 살고 있다. 全世界의 으로 수많은 새로운 情報가 生産·利用되고 있으며 이 情報의 효율적인 生産과 利用은 넓게는 人間の 福祉에 直結되고 있으며 좁게는 한 國家나 社會의 生産에 直結되고 있다. 한편 讀書는 이러한 情報의 生産과 利用의 求心的인 媒介體가 되고 있으며 讀書行動은 곧 情報生産과 利用의 効率性에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人間の 讀書行動의 重要性과 研究의 必要性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現代는 情報產出이 急增되고 있는 時代이며 이러한 急增된 情報의 效率의인 處理를 위해서 讀書行動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

情報의 生産이 急增하고 이러한 情報의 生産을 經濟學的的으로 是 知識產業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知識產業의 膨脹趨勢<sup>1)</sup>를 보면 美國의 경우 1955년에는 知識產業의 生産額이 GNP의  $\frac{1}{4}$ 이었는데 10년후인 1965년에는 GNP의  $\frac{1}{3}$ 로 急增되었고 70年代末에는  $\frac{1}{2}$ 까지 急增될 것이라고 豫言되고 있으며 日本의 경우는 1963년에 GNP의 약  $\frac{1}{6}$ 이던 것이 1965년에  $\frac{1}{5}$ , 1975년에는 약  $\frac{1}{3}$ 로 急增되어가고 있는 趨勢이다. 이러한 情報의 急增趨勢는 인간에게 단시간에 수많은 情報處理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情報處理는 인간의 讀書行動에 따라 좌우되며 效率의인 讀書行動을 豫言하고 統制하기 위해서는 讀書行動의 基礎的인 實態와 아울러 讀書行動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

둘째, 情報產出의 急增은 各種 知識과 技能의 專門化와 關聯되어 있으며 이러한 專門化된 情報의 探索에 대한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報處理의 主體인 인간의 讀書行動에 관한 基礎的 研究가 必要하다.

科學情報의 增加는 年間 7%의 複利로 指數函數의 으로 增加하고 있어서 10~15년마다 情報量이 增加하고 있으며 年間 發表되는 專門的인 論文件數는 500~600 萬件에 달할 것으로 推算되고 70年代末에는 1,000萬件을 上廻할 것으로 推算되고 있다.<sup>2)</sup>

科學에 관한 專門雜誌만 보더라도 美國의 경우 166 年代에는 1種밖에 없던 것이 1750년에는 10種, 1,800 年에는 100種, 1,850년에는 1,000種, 1,900年代에는 10,000種에 이르게 되고 현재는 100,000種을 훨씬 넘게 되었다.<sup>3)</sup> 이러한 情報의 專門化 趨勢는 情報의 公害라는 말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인간의 效率의 으로 適應해 나가기 위해서는 讀書에 대한 體系의인 研究가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提示한 情報의 大量的 生産과 專門化에 따라 인간의 情報探索行動인 讀書行動에 관한 理論的 研究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

네째,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매우 低調한 讀書量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國家開發을 위해서도 讀書를 위한 政策의 配慮가 더욱 傾注되어야 하고 讀書行動에 관한 研究가 眞正히 必要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教育人口는 全體人口의 약 25%인 850萬에 이르고 있으며 識者率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

1) 大韓日報. 圖書와 精神資源개발, 1971.9.28字.  
2) Derek J. De Solla Price, "The Scientific Foundations of Science Policy," *Nature*, 206: 4981 (1965), pp. 233-238.  
3) 구지회, 도큐멘테이션에 꼭 있어야 할 것, -컴퓨터의 필요성과 적용범위-, 도서관, 28, 6(1973.6), p.16.

해서도 높은 약 90%의 高率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讀書人口는 全體人口의 7~10%에 머무르고 있으며<sup>4)</sup> 英國의 45%, 美國의 30%, 프랑스의 28%에 비하여 극히 低調함을 나타내고 있다. 國民 1人當 讀書量은 年間 平均 60페이지로서 日本의 3,000페이지, 歐美의 1,080페이지에 비해 너무 큰 差異가 있는 實情에 있다.<sup>5)</sup> 이러한 우리 나라의 低調한 讀書實態의 改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의 讀書與件과 行動에 관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

B. 研究의 目的

本 研究에서는 앞에서 提示된 研究의 必要性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目的으로 研究를 遂行하였다.

첫째, 職場人의 讀書實態에 관한 基礎資料를 蒐集·分析한다.

讀書行動을 豫言하고 統制하기 위해서는 먼저 讀書行動의 背景을 이루는 讀書場所·藏書量·圖書購入 등에 관한 讀書環境의 資料와 아울러 讀書時間이나 時期, 讀書動機, 生活上의 問題와 讀書와의 關係 및 讀書 障礙要困 등과 같은 讀書行動에 直結된 資料가 必要하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讀書行動의 背景的 環境과 讀書行動에 관한 基礎資料를 蒐集·分析한다.

둘째, 讀書行動의 豫言을 위한 理論을 設定하고 假說을 檢證한다.

學問의 基本的인 目標은 事實들에 基礎하여 事實들 사이의 關係를 豫言하고 統制하는 것이다. 讀書行動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讀書行動의 基本要素를 考慮하고 이 要素들간의 關係를 規定하여야 한다. 本 研究에서는 心理學의 期待理論(expectancy theory)을 適用하여 讀書行動에 관한 假說을 設定하고 檢證하려 하였다.

C. 理論의 背景 및 假說

本 研究에서는 讀書行動에 心理學에서 開發된 期待理論<sup>6)</sup>(expectancy theory) 또는 手段理論<sup>7)</sup>(instrumentality theory)을 適用하였다. (이하에서는 期待理論으로 記述한다) 期待理論에서는 人間의 行動은 ① 行動이 여러 가지 產出(out-come)을 일으킬 것이라는 期待

(expectation)와 ② 이들 結果에 대한 評價(evaluation)에 의하여 決定된다는 假說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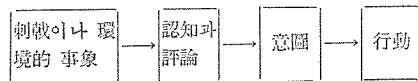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期待라는 概念은 心理學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며 Lewin<sup>8)</sup>과 Tolman<sup>9)</sup>은 모두 行動과 그것의 知覺된 產出(perceived out-come)사이의 關聯을 強調하였다. 이 理論이 行動 豫言에 대한 成功은 3개의 研究分野, 즉 學習研究分野의 言語의 條件形成(verbal conditioning), 社會的 態度(attitudes) 및 產業心理學分野에 대해서 評價되고 있으며<sup>10)</sup> 특히 產業勤勞者들의 職務遂行(job performance)에 關聯하여 Vroom<sup>11)</sup>과 Porter 및 Lawler<sup>12)</sup>는 發展된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이들의 理論의 規定은 그 후 상당한 思考와 研究를 刺戟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理論을 要約하여 提示하고 이 理論에 비추어 本 研究의 研究假說을 提示하고자 한다.

1. 期待理論

期待理論은 앞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行動은 ① 行動이 어떤 產出을 일으키게 하는 確率(probability)에 대한 사람의 推定과 ② 이들 產出에 대한 評價에 의하여 일부 일어나게 된다고 暗示하고 있다. 이 두 構成要素는 人間の 內部에서 일어나는 過程이며 이러한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研究者에게 行動의 原因으로서의 觀察될 수 있는 要因과 觀察될 수 없는 要因을 모두 지지하는 論理를 使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13)</sup>

이 理論에서는 人間の 行動이 일어나는 過程을 刺戟이나 環境의 事象, 認知·評價, 意圖 및 行動의 4段階로 區分하고 있다.



<圖1> 期待理論에서 本 人間行動 發生過程

이 理論이 心理學의 다른 理論(예 : 刺戟反應理論)들과 다른 것은 人間行動이 刺戟에서 바로 行動으로

4) 韓國日報, 讀書人口가 부끄럽다, 1974. 9. 26字.

5) 朝鮮日報, 韓國의 讀書與件, 1970. 9. 24字.

6) H.G. Heneman III and D.P. Schwab, "Evaluation of Research on Expectancy Theory Predictions of Employee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78 : 1(1972), pp.1-9.

7) T.R. Mitchell and A. Biglan, "Instrumentality Theories: Current Use in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76 : 6(1971), pp. 432-454.

8) K. Lewin, *A Dynamic Theory of Personality*(New York: McGraw-Hill, 1935).

9) E.C. Tolman, *Purposive Behavior in Animals and Men* (New York: Appleton-Century, 1932).

10) T.R. Mitchell and A. Biogran, *Op. cit.*

11) V.H. Vroom, *Work and Motivation*(New York: Wiley, 1964), pp. 8-19.

12) L.W. Porter and E.E. Lawler, *Managerial Attitudes and Performance* (Homewood, Ill: Irwin- Dorsey, 1968), p. 237.

13) T.R. Mitchell and A. Biglan, *Op. cit.*, p. 434.

行되는 것이 아니라 그 中間에 認知와 評價 그리고 意圖가 介在한다는 것이다. 人間은 刺戟이나 環境的 事象(stimulus or environmental events)에 의해 어떤 認知(cognitions)나 評價(evaluation)를 일으키며 이 認知와 評價가 綜合되어 어떤 行動에 대한 意圖(intention)가 생기며 行動은 이 意圖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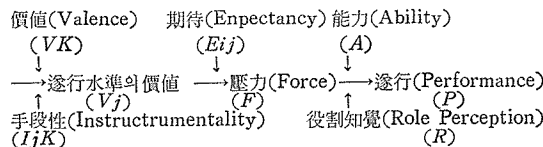
Vroom<sup>14)</sup>은 위에 提示된 期待理論의 概念構造에 따라서 產業場面에서의 人間의 職務遂行에 관한 假說을 세웠다. 그에 의하면 職務遂行(P)은 遂行에 대한 壓力(F)이나 動機(motivation)와 能力(A)간의 相互作用의 函數라고 보았다.

$$P=f(F \times A)$$

한편 Porter와 Lawler는 役割知覺의 要因을 추가하여 遂行(P)은 일어난 努力(E)이나 動機, 能力(A)과 役割知覺(R)의 3가지 要素의 相互作用의 函數로 보았다.

$$P=(E \times A \times R)$$

動機·能力 및 役割知覺에 관한 概念 規定은 위에 記述하기로 한다. 이 두 理論간에 用語上的 差異는 存在하지만 이들 사이의 유일한 實質的 差異는 Porter·Lawler에 의한 附加的인 遂行의 決定要因으로서의 役割知覺(role perception)의 포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理由와 概念의 명료화를 위해서 이들 理論을 綜合하여 포괄적이며 概念的인 중요한 要素의 떠대는 <圖2>와 같다.



<圖2> Vroom과 Porter 및 Lawler의 理論에 根據한 遂行에 관한 期待理論의 豫言

Vroom의 理論에서 努力水準 i를 일으키는 壓力은, ① 各 遂行水準의 價値(Vj)와 ② i의 努力量이 各 遂行水準(performance level)의 達成을 일으킬 知覺된 確率(perceived probability) 간의 相互作用의 總計 函數이다. 여기서 知覺된 確率は 期待(Eij)라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公式이 成立된다.

$$Fi=f \left[ \sum_{j=1}^n (Vj \times Eij) \right]$$

사람은 가장 강한 포지티브한 壓力(Force)을 選擇하거나 가장 약한 네가티브한 壓力을 選擇한다고 假定되었다.

한편 遂行水準(1次水準)의 產出은 그것이 價値있는 2次水準의 產出, 예를 들면, 俸給이나 認定과 같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 知覺되면 價値(valence)를 갖게 된다. 遂行水準 j가 2次水準의 產出 K를 얻게 할 것이라는 知覺은 遂行水準의 手段性(instrumentality)(IjK)이라고 불리운다. 遂行水準 j의 價値는 2次水準 產出의 價値와 遂行水準의 手段性 사이의 相互作用의 總計 函數로 假定되었다.

$$Vj=f \left[ \sum_{k=1}^n (VK \times IjK) \right]$$

Porter와 Lawler<sup>15)</sup>는 遂行動機에 관한 理論의인 취급을 제시하였고 Lawler<sup>16)</sup>는 이것을 더욱 정교하게 하였는데, Lawler의 理論은 用語上的 差異를 제외하면 Vroom의 理論과 비슷하다. Vroom의 用語와 그에 相應하는 Porter와 Lawler의 用語는 다음과 같다. 壓力(努力), 2次水準 產出(報償)의 價値, 手段性(遂行一報償確率) 및 期待(努力一遂行確率)이다 後者の 두개의 用語에 대해서 Porter와 Lawler는 努力一報償 確率이라고 하였다.

Vroom과 Porter 및 Lawler는 遂行에 대한 能力(ability)의 役割을 規定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의 실제 遂行能力에 달려 있다고 假定하였다. Vroom은 能力을 利用하거나 利用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課題遂行을 위한 잠재력을 나타내는 特徵으로서 定義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Porter와 Lawler는 能力은 사람이 最近發展시킨 遂行에 대한 힘(power)을 나타내는 비교적 安定된 特徵, 예를 들면 性格特性·知能·精神機能 등과 같은 것으로 定義하였다. 이 두 模型(model)은 課題를 遂行하려는 意圖(willingness)보다는 사람의 能力에 強調를 두고 있다.

Porter와 Lawler는 遂行의 決定要因으로서 附加的으로 役割知覺(role perception)을 포함시키고 있다. 役割知覺은 努力의 方向 즉 개인이 자기의 일을 成功的으로 遂行하는데 필요하다고 믿는 活動과 行動의 종류로서 定義되었다. 그는 또한 役割知覺의 精確성(accuracy)은 役割知覺 자체보다는 더욱 중요한 遂行 決定要因이라고 암시하였다.

## 2. 研究의 假說

위에서 제시한 期待理論에서 볼 때 讀書行動은 讀書行動에 대한 壓力(F)에서 나온다고 假定할 수 있다.

15) L.W. Porter and E.E. Lawler, *Op. cit.*, p. 226

16) E.E. Lawler, "Job Attitudes and Employee Motiv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ersonnel Psychology*, 23 (1970), pp. 223-238.

14) V.H. Vroom, *Op. cit.*

期待理論에서 壓力은 產出의 價値(valence)와 行動이 일으키는 產出에 대한 期待強度의 相互作用의 總計이므로 讀書努力은 讀書에 의해서 얻어지는 產出이나 利得과 讀書가 그 產出이나 利得을 일으킨다고 期待하는 것의 強度의 相互作用 總計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公式이 成立될 것이다.

$$\text{讀書努力} = f \left[ \sum_{j=1}^n (\text{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 \times \text{讀書가 產出에 기여해 주는 確率}) \right]$$

위의 公式에서 讀書努力은 실제의 產出인 讀書量이나 時間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讀書量이나 時間은 讀書努力과는 달리 다른 附加的인 外部的 讀書障礙要因의 作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讀書量(또는 時間)은 사람의 努力程度를 直接의으로 反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關係를 公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text{讀書量(또는 時間)} = f \left[ \sum_{j=1}^n (\text{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 \times (\text{讀書가 產出에 기여해 주는 確率}) \right] - (\text{讀書障礙의 強度})$$

이러한 실제의 讀書量이나 時間과 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 讀書가 이 產出에 기여해 주는 確率 및 讀書障礙의 強度 사이의 關係에 基礎하여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세웠다.

[假說1]: 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가 크고 讀書가 이 產出에 기여하는 確率이 클수록 讀書量은 더 클 것이다.

[假說2]: 讀書에 대한 障礙의 強度가 클수록 讀書量은 더 적을 것이다.

### D. 研究의 限界

本 研究에서는 職場人 가운데에서 事務職에 從事하는 사람을 對象으로 調査가 實施되었으므로 讀書實態에 대한 結果는 이들에 限定된 것이며, 其他 職種(예를 들면, 勞務職이나 技術職)에 대한 一般化에는 制限이 있게 된다. 또한 調査紙 實施面에서 職場의 사정상 集團的으로 實施되지 못하고 配付하여 反應하게 하였으므로 反應이 다소 不誠實한 制限이 있을 것이다.

## II. 研究方法

### A. 調査對象

本 研究의 對象은 서울시내 S會社에 勤務하는 職場人이었다. 調査紙는 總 400부가 配付되었으며, 그 가운데 207부가 回收되어 回收率은 50.2%였다.

### B. 調査紙

調査紙는 讀書實態를 알아보기 위해서 讀書時間·圖書購入方法·讀書場所·讀書와 관련된 生活上의 重要問題와 障礙要因 등에 관한 18個 項目으로 構成되었다.

### C. 調査節次

① 豫備調査實施: 調査紙에 대한 反應의 適切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豫備調査紙를 作成하였다. 시내 S會社의 30명에게 調査紙를 配付하여 全量 回收하고 各項目에 대한 反應을 檢討하여 本 調査紙를 作成하였다. (調査期間은 1974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였다). ② 本 調査實施: 1974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調査紙의 配付와 回收를 하였다.

## III. 結果 및 解釋

### A. 讀書實態

#### 1. 讀書環境 및 藏書量

##### (1) 書齋의 有無

書齋의 有無는 讀書를 위한 環境이 어느정도 造成되고 있는가에 대한 指標가 될 수 있다. 本 研究에서 職場人들의 書齋의 有無를 調査한 結果는 <表1>과 같다.

<表1> 書齋의 有無

內 容	反 應 數	比 率(%)
있 다	45	21.7
없 다	161	78.3
計	207	100.0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에 별도의 書齋가 있다고 反應한 사람은 전체의 21.7%였으며, 書齋가 없다고 反應한 사람은 78.3%로서 약  $\frac{1}{4}$ 에 달하는 職場人들만이 書齋를 가지고 있고  $\frac{3}{4}$ 의 사람들은 書齋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 (2) 讀書場所

職場人들의 讀書場所는 주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調査해 본 結果는 다음 <表2>와 같다.

<表2> 讀書場所

內 容	反 應 數	比 率(%)
서 제	175	84.5
거주하는 방	107	51.7
사 무 실	12	5.8
도서실(자료실)	14	6.8
통 근 길	25	12.1

N=207

<表2>를 보면 書齋에서 주로 讀書를 한다는 反應이 84.5%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居住하는 房 51.7%, 通勤길 12.1%, 도서관 6.8%, 사무실 5.8%의 順으로 나타났다.

讀書場所로 가장 많은 反應率을 보인 書齋(84.5%)는 아마도 독방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書齋에서 讀書를 한다고 反應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讀書場所로 사무실, 도서관보다는 通勤길에 反應을 많이 보인 것은 職場인들이 도서관이나 사무실에서 讀書를 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지 못한 問題點도 있겠지만 讀書할 時間이 부족하여 通勤의 지루함을 덜고자 하거나, 敎養增進의 動機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藏書量

職場인들이 가지고 있는 圖書量을 調査해 본 결과 <表3>에서와 같이 1人當 平均 圖書는 全體 保有數가 173.3권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敎養圖書는 108.2권, 專門圖書가 65.1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專門圖書보다는 敎養圖書를 더 많이 所藏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3> 藏書 數

內 容	平均(권)	$\sigma$
敎 養	108.2	45.4
專 門	65.1	18.3
全 體	173.3	52.5

N=207

2. 購入圖書量

(1) 年間 購入圖書量

職場인들이 1년 동안 購入한 圖書의 수를 살펴보면 <表4>와 같다.

<表4> 年間 購入 圖書 量

內 容	平均(권)	$\sigma$
敎 養	9.1	12.6
專 門	5.7	7.7
全 體	14.8	12.7

<表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 1人當 平均 年間 購入圖書量은 14.8권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敎養 및 專門圖書別로 區分하면 敎養이 9.1권 專門圖書가 5.7권으로 나타났다. 全體적으로 圖書購入量을 보면 月 1卷 程度의 圖書를 購入한 셈이고 專門圖書에 비해 敎養圖書는 年間 3.4권이나 더 많이 購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圖書購入의 情報源

圖書購入을 할 때 어떤 소오스에 의해 購入決定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調査한 結果 다음 <表5>와 같다.

<表5> 圖書購入을 위한 情報源

情 報 源	反 應 數	比 率(%)
타인의 소개	43	20.8
신문잡지의 광고	21	10.1
신문서명	15	7.2
서점에서 본인이 선택	112	54.1
자료실의 신간안내 또는 목록	36	17.4

N=207

書店에서 본인이 選擇한 것이 54.1%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他人의 紹介 20.8% 資料室의 新刊案内 또는 目錄 17.4% 新聞·雜誌의 廣告 10.1% 新聞書評이 7.2%로 가장 낮은 反應을 나타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결과는 圖書를 購入하는 情報媒體로서 新聞書評欄과 新聞廣告를 利用하는 것은 전체의 17.3%에 불과하여 매스 미디어를 통해 購入하는 것은 全體 圖書의 극히 一部分이라는 점이다.

3. 讀書量

(1) 藏書 중 읽은 冊數

職場인들이 所藏하고 있는 圖書중 완전히 읽은 것은 몇권이나 되는지를 알아본 結果 1人當 平均 57.5권을 읽었으며 標準偏差는 51.8로 나타났다.

(2) 年間 讀書量

職場인들의 1年間 平均 讀書量을 調査해 본 結果 全體 平均 讀書量은 11.4권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敎養 및 專門圖書別로 區分하여 보면 敎養圖書는 平均 6.7권, 專門圖書는 平均 4.7권으로 나타났다. <表6>

<表6> 年間 讀書 卷 數

內 容	平均(권)	$\sigma$
敎 養	6.7	7.6
專 門	4.7	5.4
全 體	11.4	7.0

N=207

<表6>을 보면 전체의 1人當 平均 讀書量은 11卷 정도여서 月 1卷도 채 읽지 못하는 편이었고 專門圖書보다는 敎養圖書를 年 2卷 程度 더 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國立中央圖書館의 『讀書實態調査報告(1971)에서 成人의 年間 讀書量은 10-12卷에 가장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어서 本 研究의 結果와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 1日 平均 讀書時間

職場人들의 하루 平均 讀書時間을 調査해 본 結果 0~29분이 61.8%로 가장 많은 反應을 나타냈고 [다음 이 30~59분 사이가 28.5% 1시간 이상이 9.7%順이었다. <表7>

<表7> 1日 平均 讀書時間

독서시간(분)	反 應 數	比 率(%)
60	20	9.7
50~59	20	9.7
40~49	10	4.8
30~39	29	14.0
20~29	44	21.3
10~19	33	15.9
0~ 9	51	24.6
계	207	100.0

이 結果를 보면 職場人들은 대부분 하루 平均 30分 정도의 독서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職場人들의 1日 平均 讀書時間을 계산 결과 平均 讀書時間은 31.1分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어린이들의 하루 平均 讀書時間이 30分부터 1時間이라는 결과와 비교할 때 직장인들이 어린이들보다도 독서시간이 더 적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讀書目的 및 讀書와 關聯된 問題

(1) 讀書 目的

職場人들이 讀書하는 目的을 分析한 結果는 <表8>과 같다.

<表8> 讀 書 目 的

독 사 목 적	반 응 수	비 율(%)
취직이나 시험을 위해서	10	4.8
전문적 지식확대를 위해서	90	43.5
일반교양 증진을 위해서	105	50.7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54	26.1
흥미가 있어서	36	17.4
여가 이용을 위해서	51	24.6
기타	—	—

N=207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般敎養增進을 위해서가 50.7%로 가장 많은 比率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專門的 知識擴大를 위해서 43.5%, 情緒的 安定이 26.1%, 여가이용을 위해서가 24.6%, 興味が 있어서가 17.4%, 就職이나 試驗을 위해서가 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表를 보면 대체적으로 職場人들의 讀書動機내지는 目的을 知識獲得과 敎養增進을 위한 手段으로 나타났다.

本 調査의 結果는 國立中央圖書館의 調査結果와 一

致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目的을 職場人들의 讀書動機와 比較해 보면 어린이들은 재미가 있어서가 약 49.0%, 도움이 되어서 40.0%, 심심해서 10.0%, 공부와 수험을 위해서 10.0%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이 反應結果를 比較해 보면 職場人들의 讀書目的은 意圖的으로 知識獲得을 위한 目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주로 단순한 흥미 본위로 讀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主要 問題 및 目標

職場人들이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主要問題나 目標은 讀書하는 直接的인 動機나 目的은 아니겠지만 職場人들의 生活에서의 問題나 目標은 讀書行動에 영향을 주는 要因이 될 것이며 讀書는 이 問題解決에 關聯될 수도 있다.

本 調査에서 職場人들의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主要問題나 目標은 무엇인가를 알아 본 結果는 <表9>과 같다.

<表9>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重要性

중 요 도	기 혼		미 혼		계	
	반응수	%	반응수	%	반응수	%
수입 증대	44	65.7	68	48.6	112	54.1
전문적 지식 확대	47	70.1	94	67.1	142	68.6
교양 향상	41	61.2	77	55.0	118	57.0
여가 선용문제	27	40.3	76	54.3	103	49.8
건강(피로)문제	33	49.3	71	50.7	104	50.2
승진 문제	32	47.8	53	37.9	85	41.1
대인관계	31	46.3	69	49.3	100	48.3
결혼문제	15	22.4	66	47.1	81	39.1
자녀 교육문제	30	44.8	27	19.3	57	27.5

※ 기혼 N= 67

미혼 N=140

<表9>을 보면 全體 職場人들의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主要問題나 目標은 專門的 知識擴大가 68.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敎養向上 57.0%, 收入增大 54.1% 健康(피로)問題 50.2%, 餘暇善用問題 49.8%, 對人關係 48.3%, 昌進 41.1%, 結婚問題 39.1%, 子女教育問題 27.5%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를 보면 職場人들은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主要問題나 目標이 經濟的인 問題, 昇進問題 등에 많은 反應을 나타낼 것이 豫想되나 專門的 知識擴大가 68.6%로 가장 많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어 專門的 知識擴大에 대한 問題가 生活에서 當面하고 있는 重要한 問題나 目標로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讀書에 대한 障碍과 問題點

(3-1). 讀書條件

職場人들의 讀書에 대한 障礙와 問題點을 調査하기 위하여 그들이 느끼는 讀書條件을 分析한 結果(表10)과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讀書條件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으로 反應한 사람은 全體의 41.8%로 나타났으며 좋은쪽의 反應合計는 37.2% 나쁜쪽은 21.0%로서 좋은 條件에 있다고 反應한 사람이 많았다.

〈表10〉 讀書條件

독서조건	반응수	비율(%)
아주 좋은 조건이다.	35	16.9
좋은 조건이다.	18	8.7
조금 좋은 조건이다.	24	11.6
보통이다.	85	41.1
조금 나쁜 편이다.	24	7.7
나쁜 편이다.	18	2.9
아주 나쁜 편이다.	35	4.4
무 답	14	6.7
계	207	100.0

(3-2). 讀書의 障礙要因

讀書에 대한 障礙나 問題點을 內容別로 分析하면 〈表11〉과 같다. 時間不足(78.7%)이 가장 큰 障礙로 나타났고 健康(피로) 問題(48.3%) 讀書環境(42.0%) 圖書費 또는 圖書不足(41.5%) 및 讀書에 대한 無關心(35.3%)으로 나타났다. 〈表11〉

〈表11〉 讀書의 障礙要因

장애요인	기 혼		미 혼		계	
	반응수	%	반응수	%	반응수	%
시간부족	50	74.6	113	80.7	163	78.7
도서비 또는 도서부족	29	43.3	57	40.7	86	41.5
건강(피로)문제	34	50.7	66	47.1	100	48.3
독서환경	29	43.3	58	41.4	87	42.0
독서에 대한 무관심	28	41.8	45	32.1	73	35.3

이를 既婚者·未婚者別로 讀書의 障礙要因을 調査해 보면 별 差異가 없게 나타났으나 讀書에 대한 無關心은 두드러지게 既婚者들(41.8%)이 未婚者(32.1%)들보다 더 많아서 결혼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들이 讀書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B. 讀書行動에 미치는 主要變因의 영향

1. 讀書量과 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 및 讀書가 產出에 기여해 주는 確率間의 關係(가설 1의 검증)

本 研究의 첫번째 假說을 檢證하기 위하여 讀書量과 讀書가 주는 產出의 가치(valence) 및 讀書가 產出에 기여해 주는 확률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독서량은 하

루 讀書時間으로 측정되었으며 讀書가 주는 產出의 가치는 生活上의 문제나 목표(예 : 수입증대, 적문적지식 확대, 교양향상, 여가선용, 건강, 승진 등)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개인적인 중요성 判斷으로 이루어졌다. 判斷은 1에서 7점에 이르는 尺度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尺度의 극단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매우 중요하다”로 記述되었고 중간은 “보통이다”로 記述되었다. 讀書가 產出에 대해 기여해 주는 확률을 측정하기 위해 讀書가 生活上의 문제나 목표들에 기여해 주는 정도는 7點尺에 의해 측정하였다.

讀書時間과 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讀書가 產出에 기여하는 寄與度 價値 사이의 關係를 檢證하기 위하여 個人別 1日 讀書時間의 測定值 사이의 Pearson의 積率 相關係數를 계산한 結果  $r=.61$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意義度 검증결과 CR은 8.7로서  $P<.001$ 의 수준에서 有意하였다. 따라서 [假說1]의 讀書時間과 讀書가 주는 產出의 價値 및 讀書가 產出에 기여하는 確率 사이의 關係에 의한 假說은 강력히 지지되었다.

2. 讀書量과 讀書에 대한 障礙強度間의 關係(가설 2의 검증)

假說 2에서는 讀書量은 讀書에 대한 障礙나 困難이 클수록 더 적어진다는 것이었다. 假說 1의 검증에서와 같이 讀書量은 個人的 1日 平均 讀書時間으로 測定되었으며 讀書에 대한 障礙의 強度는 一般的인 讀書條件의 좋고 나쁜정도에 대한 7點尺度上的 점수와 讀書에 대한 障礙나 問題의 內容(예 : 시간부족, 도서부족, 독서부족, 독서환경 등)에 대한 해결가능성에 대한 評定點數(rating score)의 合計點數의 두 가지로 測定되었다.

讀書時間과 讀書의 一般的 條件 및 讀書障礙要因들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평정점수의 합계 사이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積率相關係數를 計算한 結果, 讀書時間과 讀書의 一般的 條件의 評定點數間에는  $r=-.47$ 이 나왔으며 讀書時間과 讀書障礙要因들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評定點數의 合計 사이에서  $r=-.10$ 이 나왔다. 따라서 相關係數의 크기로 볼 때 讀書條件에 대한 一般的인 評定이 讀書障礙要因들에 대한 評定值의 合計보다 더 큰 相關係數를 보였다. 각각의 相關係數의 意義度を 검증한 결과 讀書時間과 一般的인 讀書條件에 대한 相關係數는 CR=5.9로서  $P<.001$ 의水準으로 有意하였으며, 讀書時間과 讀書障礙要因의 해결가능성에 대한 評定值의 合計 사이에는 CR=1.43으로  $P$ 는 0.5水準에 未達되어 意義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假說 그는 測定值에 따라 다른 지지를 보였으나 讀書時間이 讀書에 대한 一般的인 評定點數와 有意한 相關을 보인 데서 또한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